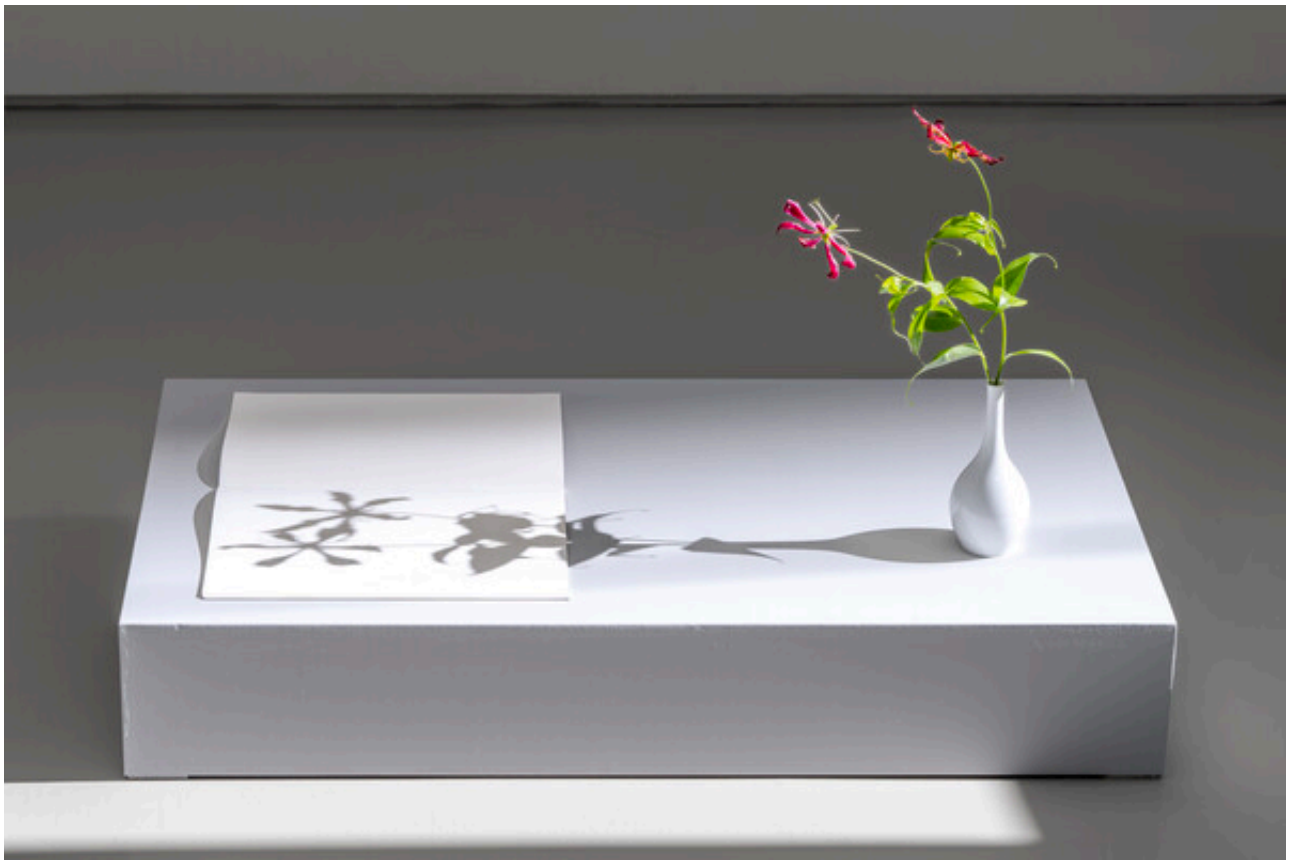
시간에 대한 시적인 재해석 , 유르겐 스탁.홍순명 2인 전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함혜리 대표기자 | 승인 2024.11.30 16:21

11.15~12.24, 서정아트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7길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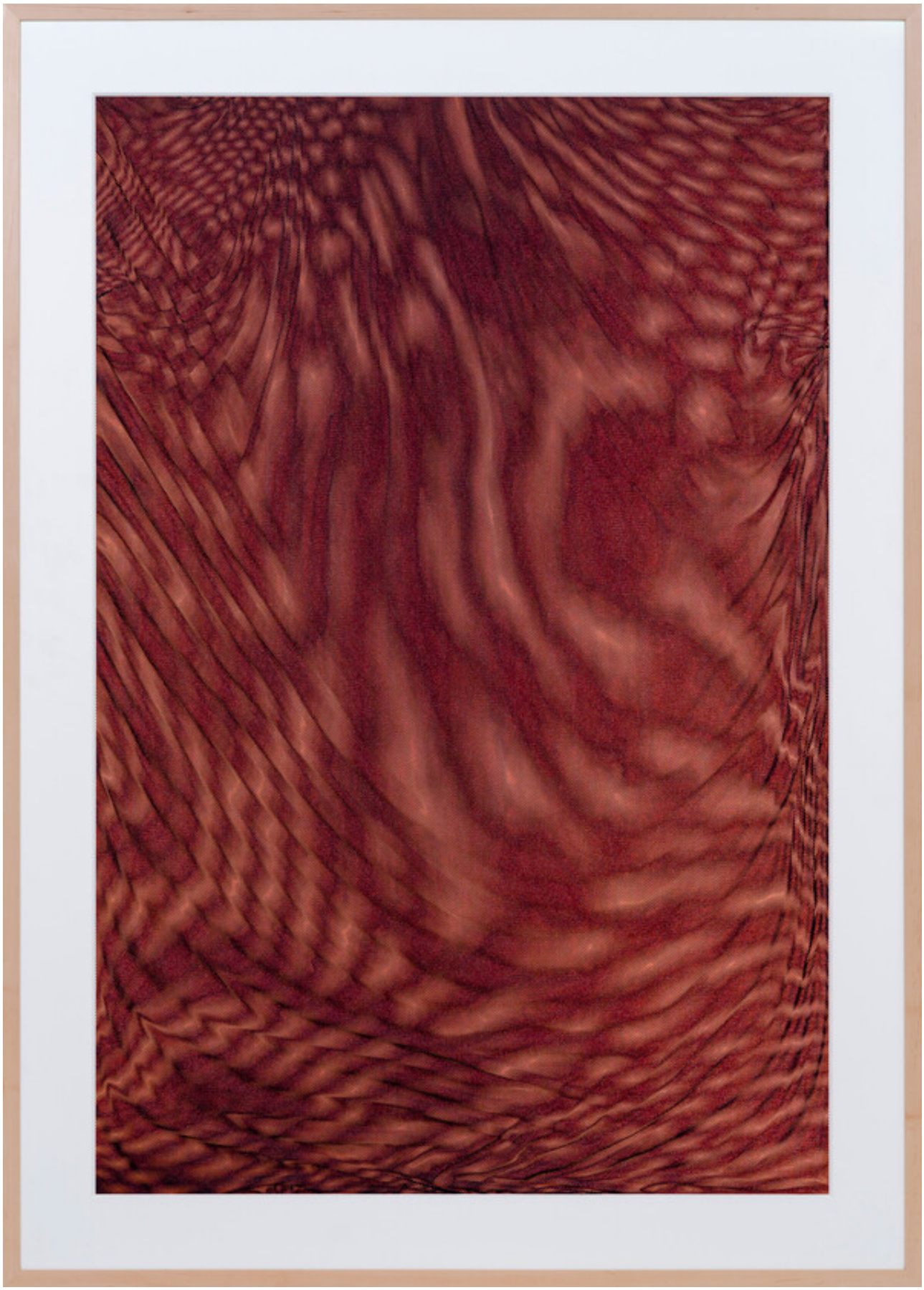
‘시간’이라는 주제에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작업을 보여주는 유르겐 스탁(Juergen Staack, b.1978)과 홍순명(b.1959)의 2인 전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가 서정아트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다른 두 작가가 시간의 의미를 직조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여주는 흥미로운 전시다.

전시명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이탈리아 태생의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 (Carlo Rovelli, 1956~)의 저서 제목에서 착안했다. 그는 시간이 순서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형적인 통념을 전복하고 시간의 상대성, 비선형성, 개별성을 제안한다. 즉 시간은 원초적 질서가 아니라 사건 간의 관계이자 그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험의 양상으로 우리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Juergen Staack, Light Sketch 글로리오사 수퍼바-Gloriosa Superba, 2024

언어, 이미지의 경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시적으로 재해석한 사진, 설치작업으로 주목받는 독일 작가 유르겐 스탁은 생태적 존재인 시간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매체에 담아낸 작업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라이트 스케치'를 통해 직접적인 시간의 경험을 제안한다. 태양 빛이 사물에 비추어 생긴 그림자를 통해 시간의 이동을 추측할 수 있게 한 작품은 꽃병 앞에 펼쳐진 흰색 노트 위에 그림자가 잠시 머무르고 사라지지만 찰나의 순간은 우리의 인식 속에 존재하게 된다. 화병, 노트, 햇빛이 만들어 내는 그림자로 이뤄진 설치와 이를 담은 사진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풍경은 무척 시적이다. 라이트박스에 모아레 무늬의 천을 겹쳐 설치한 '모아레'에서는 천의 특정한 패턴이 겹치며 발생하는 찰나의 시각적 오류를 미적 도구로 치환한다.



Juergen Staack, Aberration M2-Moiré - Rouge I, 2021

uergen Staack, SOLAR COPY-Shadows of Plants No. 019

‘솔라카피’ 연작은 기후변화로 몽골 고비 사막에 등장한 변종 식물들의 그림자를 인화지에 기록하며 생태계 속 변이를 보여주고자 한 작업이다. 유르겐 스탁 작가는 “인간이 만들어낸 현실 세계에 많은 변화들이 문제를 안고 있다. 고비사막 식물과 그림자를 통해 있어서는 안될 상황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작업 배경을 설명했다.

홍순명은 시간을 원초적 질서가 아닌 우리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 경험의 양상으로 본다. 즉, 시간이란 결과적으로 여러 시대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결합인 것이다. '저기, 일상' 연작에서는 본인이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의 단면과 같은 날 인터넷과 외신을 통해 접한 지구 반대편의 사건들이 동일한 화면에 중첩되어 있다. 그 지점에 작가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떼어내는 작업을 반복하며 화면의 행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결과물을 도출한다. 홍순명 작가는 "익숙하고 매우 사적인 주제와 대중매체가 다루는 시대의 이야기 한 화면에 넣음으로써 시간, 공간의 차이를 넘어 동시대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기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Hong Soun, The tale of certain country-210723, 2021

Hong Soun, Over there..days-Tree Hug-24092, 2024

‘A국 이야기’ 연작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지역의 노례가 바다에서 노동하는 모습을 담은 과거의 사진과 본인이 바다를 거닐던 어느 여유로운 날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 바다라는 공통된 장소에서의 각자의 시간은 완벽하게 분리된 차원의 두 현실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개념미술과 미니멀미술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독일 콘라드 피셔 갤러리와 협력으로 진행된다. 전시는 12월 24일까지.▣

함혜리 대표기자 culturelamp@naver.com

저작권자 © 컬처램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